

# 러시아에 거주하는 고려인의 난방 방식에 관한 연구\*

- 연해주,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을 중심으로 -

A Study of the Heating Systems used by Korean Compatriot in Russia\*

- Focusing on Yunhaeju, Kazakhstan and Uzbekistan -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연구교수 이 영 심  
한국교원대 가정교육과  
교 수 조 재 순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교 수 이 상 해  
관동대학교 건축학과  
교 수 정 재 국

Dept. of Architecture, SungKyunKwan University

*Research Professor : YoungShim Lee*

Home Economics of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Professor : JaeSoon Cho*

Dept. of Architecture, SungKyunKwan University

*Professor : SangHae Lee*

School of Architecture, Kwandong University

*Professor : JaeKook Jung*

## ◀ 목 차 ▶

- |                 |             |
|-----------------|-------------|
| I. 서 론          | IV. 결론 및 제언 |
| II. 연구 방법       | 참고문헌        |
| III. 연구 결과 및 논의 |             |

Corresponding Author: YoungShim Lee, Dept. of Architecture, SungKyunKwan University, 300 ChunChun-dong, Jangan-gu, Suwon, Gyeonggi-do, Korea Tel: 82-31-290-7577 E-mail: yslee99@hanafos.com

\* 본 연구는 한국과학재단 기초과학연구사업 특정기초연구(과제번호:R01-2002-000-00252-0)의 연구비에 의해 지원된 것임.

## &lt;Abstract&gt;

In 1937, most Korean compatriot who lived in *Yunhaeju* moved to Kazakhstan and Uzbekistan in Central Asia following the deportation policy of Russia. Korean compatriot have kept their traditional life style for 140 years, without a deep relationship with Korea. This study examined the heating systems of Korean compatriot in *Yunhaeju*, Kazakhstan and Uzbekistan, Russia. A literature review and field research, based on Ethnography as a research method, was employed. The results of the research were as following: 1) Korean compatriot in *Yunhaeju* use a Pechika, which is a radiator that uses hot water, and a Gudul as the main heating systems, but the use of a Pechika was most common. A Pechika functions for cooking as well as for warming the house. The room with the Gudul was connected to the kitchen, so this space was used as a place for cooking and eating, for family members to meet. Many kinds of fuel, like gas and electricity, were used to power the heating systems. 2) Korean compatriot in Kazakhstan use radiators, with hot water as the main heating system, with ratio using Gudul used in this region being the highest of all the three areas. The most common fuels used for a Gudul were wood and coal, and gas was also used in cooking. The room with the Gudul was planned to be located beside the fireplace, without any walls. The people using a Gudul use that place for eating and meeting, as well as for family members to sleep. 3) The main heating system of Korean compatriot in Uzbekistan was a radiator using hot water, and those with pipes containing hot water buried under the floor were very common. The function is very similar to that of a Gudul, so most people using this type of radiator would sleep on the floor. Those people with a traditional Gudul not using them were mostly in Uzbekistan. The reason for this was that the family members had diminished, so it was hard work for elderly parents to manage an extra building containing a Gudul. Gas was the fuel generally used for heating and cooking in Uzbekistan. 4) Guduls were used in the Korean compatriot's houses in all three areas, even though they have changed in structure to adapt to the Russian life style. However, Guduls have still been functioning to maintain a traditional life style in Korean compatriot's houses for the gathering of family members.

**주제어(Key Words):** 난방방식(heating system), 한인동포(Korean compatriot), 연해주(*Yunhaeju*), 중앙아시아(Central Asia), 구들(Gudul), 페치카(Pechika), 전통생활양식(traditional life style)

## I. 서론

러시아에 거주하는 한국인 동포, 즉 고려인들이 러시아 지역으로 이주하기 시작한 시기는 19세기 초반이다. 1860년 북경조약에 의해 러시아 영토로 인정된 연해주는 서북쪽으로 아무르강, 동쪽으로 따파르스키 해협과 동해를 경계로 하고 있으며 남서쪽으로는 두만강 하류에 인접해 있다. 고려인들은 이주 초기에는 극도의 궁핍을 피하기 위한 농민들이 대부분이었으나 20세기 초부터는 일제에 항거하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의 이주가 시작되었다. 연해주 지역에 정착한 고려인들은 극동지역의 개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고 1917년 러시아 혁명 시에는 소비에트 정권의 수호를 위하여 투쟁하였다. 그러나 스탈린 정부는 고려인을 일본을 도울 적성민족으로

간주하여, 1937년 약 18만 여명의 고려인들을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켰다(전경수, 2002). 중앙아시아의 초원지대에 위치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고려인들이 강제 이주된 대표적인 지역으로 현재에도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수의 고려인들이 거주하고 있다(이광규, 1998). 약 120개 민족이 거주하는 카자흐스탄에서 고려인은 전체의 약 0.6%인 10만 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약 100개 민족이 거주하는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 수는 전체의 약 1%인 20만 여명이다(한길사, 199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4). 고려인들은 강제 이주된 이후부터 1953년 스탈린이 사망하기 이전까지 거주 지역을 전혀 벗어날 수 없었다. 1991년 구소련이 와 해되면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구

소련의 11개 공화국들이 각각 독립하였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독립 초기부터 회교중심 민족주의를 강하게 표방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많은 고려인들이 연해주 혹은 중앙 러시아 지역으로 이주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주변 지역들 역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이주의 움직임은 예전에 비해 감소한 상태이다.

러시아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은 140여년의 시간동안 한국과 밀접한 접촉이 없이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면에서 한국의 전통 풍속을 지키고 살아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정 민족의 주거 문화는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며 이는 특정민족의 역사와 더불어 발전한다. 또한 변화된 환경에서도 그 중심 요소가 지속되어 나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정 민족의 주거 문화에 대한 탐색은 그들의 역사에 대한 이해를 도울 뿐 아니라 전통의 지속에 대한 앞으로의 가능성까지 예측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러시아에 거주하는 고려인의 난방 방식과 주생활에 대한 탐색을 통하여 고려인의 주거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한편 전통의 난방방식이 고려인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지속되어 왔는지 또한 전통의 난방방식이 현지의 난방방식과 어떠한 식으로 결합하여 사용되어 왔는지를 탐구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난방방식을 통하여 본 전통 요소에 대한 탐색과 전통을 지속하는 방법 그리고 현지 문화와의 절충에 대한 연구는 러시아 거주 고려인의 주거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러시아 거주 고려인의 주거사 정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을 것이다.

## II. 연구방법

### 1. 조사대상 및 범위

본 연구의 조사대상 지역은 고려인의 초기 이주

지이며 구소련이 와해된 이후 고려인들의 중심적인 재이주 지역이 된 연해주 그리고 1937년 강제이주 당시 고려인들의 주요 이주지였고 현재 중앙아시아에서 고려인의 거주 비율이 높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등의 세 지역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으며 세 지역에 거주하는 고려인의 난방방식과 그 안에서의 주생활을 조사하였다.

### 2. 연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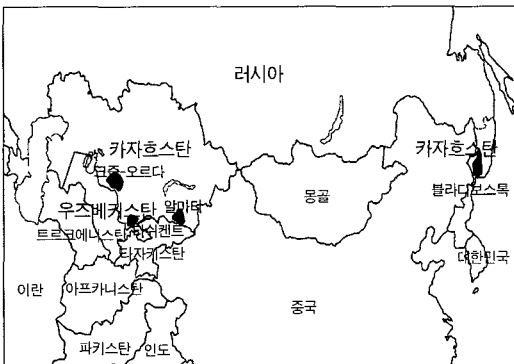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현장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문헌연구는 연해주 지역의 이주사와 주거 관련 내용의 고찰에 중점을 두어 관련 문헌 및 우리나라와 연해주 등지에서 발행한 신문과 잡지 등에서 한이주거 관련 정보를 발췌하여 분석하는 방법을 행하였다. 현장연구에서는 문화인류학에 근원을 둔 문화기술학<sup>1)</sup>의 방법에 의거하여 실측조사와 조사 대상자에 대한 면담을 행하였다. 조사대상은 연해주,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의 세 지역에 거주하는 고려인들로 각 지역의 주택에 거주하는 주부를 대상으로 하여 면담을 행하고 각각의 주택에 대한 사진 촬영과 실측을 병행하였다. 면담에 사용한 질문지의 내용은 주택별 난방방식의 종류와 구조, 각 난방방식별 주생활의 내용, 난방연료 그리고 취사방식 및 연료의 종류 등을 파악하는 내용이었다.

### 3. 연구 기간

각 지역의 조사 시기 및 장소는 다음과 같다. 먼저, 연해주 지역에서는 두 차례의 조사를 행하였다. 1차는 2003년 4월 20일-4월 30일에 그리고 2차는 2003

1) 문화기술학(Ethnography): 연구자가 직접 현장에 들어가서 관찰과 면담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관찰 결과를 메모하고 스케치와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기록하고, 사람들과의 면담을 통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어 분석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다. 참여관찰과 개방형 질문형태가 주로 사용되는 이 방법은 질적 연구이므로 소수의 현장을 택하여 심도 있게 대상을 파악하는 장점이 있다.

년 6월 24일-7월 5일에 행하였다. 조사대상 지역은 고려인의 최초 정착지로 알려진 포쉬에트(Посьет), 그리고 연해주의 중심지이며 고려인의 거주 비율이 높은 블라디보스톡(Владивосток), 우스리스크(Уссуийск), 파르티잔스크(Партизанск) 등이었다. 1차 조사에서는 한인들의 거주지였던 마을 터를 답사하고 한인들과의 면담을 통하여 1937년 이전의 주거 형태와 생활모습을 파악하였다. 2차 조사에서는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고려인 9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현재의 난방방식과 주생활을 파악하였다. 카자흐스탄 지역의 조사는 2003년 11월 4일-11월 14일에 행하였다. 조사대상 지역은 카자흐스탄에서 고려인이 처음으로 정착하였고 현재 고려인의 거주 비율이 높은 알마티(Алматы)와 우수토포베(Ущтобе)지역 등이었고 2차 조사대상은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고려인 12가구였다. 마지막으로 우즈베키스탄 지역의 조사는 2004년 1월 30일-2월 11일에 행하였다. 조사대상 지역은 우즈베키스탄의 중심지이며 고려인의 거주 비율이 높은 타슈켄트 그리고 사마르칸트, 부하라 등이었다. 타슈켄트(Ташкент)에서는 고려인들의 밀집 거주지인 아흐마드 야사비 콜호즈, 김병화 콜호즈, 드미트리 콜호즈 등 세 곳을 중심으로 조사하였으며 조사대상은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고려인 10가구였다.<sup>3)</sup>



<그림 1> 중심 연구지역인 연해주와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 III. 연구 결과 및 논의

본 연구의 조사 지역이 연해주,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의 세 지역이었으므로 연구 결과를 세 지역으로 분류하여 서술하였다.

#### 1. 연해주 지역

두만강 하류에 인접해 있는 연해주는 극동노령(흑룡강주)의 일부이며 면적은 207,000km<sup>2</sup>에 달한다. 연해주 지역으로 한인이주가 시작된 시기는 여러 설이 있으나 한인 농민 13가구가 1863년 겨울 두만강을 건너 포쉬에트(Посьет)에 정착한 것이 한인이주의 효시라는 설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1830년부터 1840년 사이에 당시 청국 영토였던 우수리(연해주)지역에 이미 한인 선주민의 발자취가 있었다(이상근, 1996). 해를 거듭하여 증가한 한인 이주민의 수는 1930년대 중기에 20여만 명에 달하였다.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고 동년 8월에 소련과 중국이 불가침 조약을 맺으면서 연해주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중앙아시아로의 강제이주가 결정되었다.

##### 1) 1937년 이전 연해주지역 거주 고려인의 난방방식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과 현지답사를 통하여 연해주의 한인거주 지역을 크게 포쉬에트(Посьет), 수이푼(Счйфун)·우스리스크(Уссуийск), 블라디보스톡(Владивосток) 그리고 파르티잔스크(Партизанск) 등의 4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문헌을 통하여 각 지역의 주거와 난방방식의 관련 내용을 고찰하고 1937년 이전에 연해주 지역에 거주하였던 거주자들을 면담하였다.

2) 알마티는 1998년까지 카자흐스탄의 수도였으며 현재 카자흐스탄 최대의 도시로서 1999년 인구조사 결과 약 20,000명의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는 대표적인 도시 지역이다. 우수토포베는 1937년 고려인들이 강제 이주되었을 당시 최초로 도착한 곳으로 현재 많은 고려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대표적인 농촌 지역이다.

3) 아흐마드 야사비 콜호즈 3가구, 드미트리 콜호즈 2가구, 김병화 콜호즈 2가구를 조사하였다.

(1) 포쉬에트(Посьет)지역

1904년 연해주에 형성되었던 32개의 한인 거주지 중 22개가 포쉬에트 지역에 있었다. 이 당시 이주 한인들의 촌락은 전형적인 한국의 농촌풍경과 비슷하였다. 이주 한인들은 회 반죽한 진흙 벽과 초가, 혹은 기와지붕을 사용하였고 갈대로 짠 울타리를 쳤으며 구들을 사용하였다(이사벨라 버드비숍, 1994). 페테로프(А.И.Петров, 2001)역시 구들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었다. 즉, 주택 바닥을 응고된 점토로 만들었는데 부유한 한인들의 경우는 점토 위에 나무판을 깔았고 이를 구들이라고 불렀다. 한인 주택의 입구 바로 옆에는 부엌이 있었고 여기에 아궁이가 있어 아궁이에서 땀 불이 방바닥을 따뜻하고 건조하게 해 주었다. 아궁이 위에는 가마솥을 놓았고 그 옆에는 식기와 조리용 세간도구를 위한 조그만 찬장이나 선반을 두었다.

본 연구의 면담자 중 강제이주 전에 포쉬에트 지역에 거주했던 경우는 전인수(80세)할아버지였다. 당시 거주했던 마을은 크라스키노 근처로 약 50호 정도의 가구로 구성되어 있었다. 면담자의 할아버지가 약방을 하였고 그 마을에서 부유한 편이었으며 주택은 10칸 집으로 가족 8명이 거주하였다.

“주택의 벽은 흙과 짚으로 만들었고 깔(갈대)로 지붕을 씌웠으며 각 방은 문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버들가지로 주택의 울타리를 만들었으며 화장실은 집 뒤에 땅을 파고 바자울을 돌려서 사용하였다. 집 앞에 공동 우물이 있어 마을 사람들이 함께 사용했다. 집은 구들을 놓아서 매우 따뜻했다. 정지(부엌)에 아궁이가 있어 여기서 식사 준비를 했다. 여자들은 정지에서 식사를 하기도 했으며 남자들은 정지에서 밥을 해서 날라주면 각자 방에서 식사를 했다. 정지는 제사를 지내는 공간이기도 했다. 제사는 돌아가신 후 3년까지 집에서 지냈고 그 후엔 산에 가서 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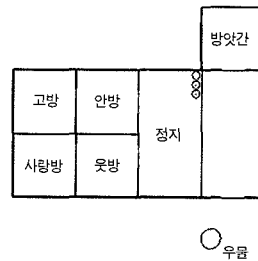
(2) 블라디보스톡(Владивосток) 지역

한인들은 한반도의 중부나 남부 지역에서 기선을 타고 이주하기도 하였다. 1873년을 전후해 블라디보스톡 빠그라니치나야 거리에 한인 마을이 형성되었는데 이 마을의 집들은 대개 러시아식의 작은 집들

이었고 내부는 한국식 온돌방의 형태였다. 1893년에 한인 거주지인 개척리가 만들어졌고 여기에 움막과 돌막집 등이 형성되었다. 개척리가 폐쇄되고 1910년대에 새로 조성한 신한촌은 300여 호 정도의 주택으로 구성되었는데 유리창을 붙이고 장관방에 교의상을 놓는 등 한층 개선된 모습이었다. 주택에 돌을 주워서 온돌을 놓고 조짚으로 이엉을 예고 널빤지를 맞대어 높게 혹은 낮게 네모 굴뚝을 세웠다는 기록이 있다(권업신문, 1914. 5. 5). 1931년에 신한촌을 관찰한 한 일본인의 보고문 역시 신한촌의 주택들에 온돌이 놓여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강제이주 전에 블라디보스톡에 거주하였던 경우는 리나자(73세)할머니였다. 당시 거주했던 지역은 블라디보스톡 신한촌으로 당시의 신한촌에는 한인들이 3-4호씩 모여 살았다. 할머니는 이 곳에서 감자와 조 농사를 지었다.

“집에는 안방, 옷방, 사랑방 등 방 3칸에 고방(곡식 창고)이 있었고 정지(부엌)가 있었다. 정지에 아궁이가 있어 여기서 식사 준비를 했으며 각 방은 구들이 있어 따뜻하였다. 집 안에 연자방아가 있는 방앗간을 두었으며 마당에 우물을 파서 사용했다.”  
<그림 2>



<그림 2> 1937년 이전 블라디보스톡 지역 한인가옥 추정 평면도

(출처: 러시아 연해주 지역의 한인 주거에 관한 연구, 이영십 외 2인, 2003, p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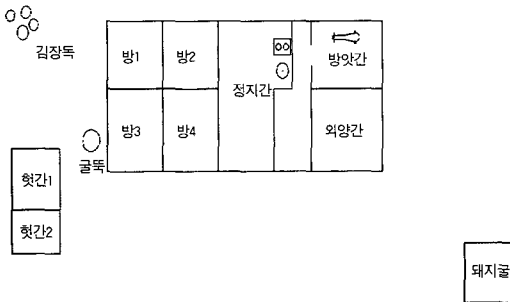
(3) 수이푼(Суйфун)·우스리스크(Уссуйск)지역

한반도에서 1869년과 1870년에 대기근이 발생하면서 한인들이 대거 국경을 넘어 이주하여 추푼(수이푼)에 자리를 잡았고 1870년에는 포쉬에트 지역의

이주민들이 우스리스크로 이주하였다. 1875년 푸칠로프카 마을에 정착한 한인들은 러시아인들에게 집 짓는 기술을 배워 러시아 식 집을 지었고 대부분 한식과 러시아식이 혼합된 주택에 거주하였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문헌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으나 당시 이 지역에 거주하였던 한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이 지역에서도 한인들이 온돌을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강제이주 전에 우스리스크·수이푼 지역에 거주하였던 한 할아버지는 푸칠로프카 마을에 살았는데 약 200호 정도의 한인들이 거주하였으며 마을에는 교회도 있었다.

“가족은 할머니와 어머니 그리고 아이들 3명이었다. 그 당시의 주택은 모두 초가집 모양이었고 집을 빙 둘러서 텃밭이 있었다. 집을 둘러싸는 울타리는 없었고 주택 벽은 흙과 짚으로 만들었다. 방은 모두 4칸이었고 정지간이 있어서 여기서 밥을 하고 소여물을 끓였다. 정지간의 맞은편에 연자방아가 있는 방앗간과 외양간이 있었다. 구들을 깔았는데 구들바닥은 짚을 엮어서 만들었고 집 뒤에 굴뚝이 있었다. 초가집의 문은 창도 되고 문도 되는 모양이었으며 문고리는 없었다. 땅을 파서 김장독을 묻었고 디딜방아를 사용하였다.”(그림 3)



<그림 3> 1937년 이전 우스리스크 지역 한인가옥 추정 평면도

(출처: 러시아 연해주 지역의 한인 주거에 관한 연구, 이영심 외 2인, 2003, p67)

#### (4) 파르티잔스크(Партизанск)지역

한반도에서의 대기근으로 1869년 이후 한인들이 대거 러시아 연내로 이동하였는데 러시아 정부는 이

후에 파생할 문제에 대비하여 한인들을 한·러 국경에서 떨어져 거주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한인들이 수청(파르티잔스크)지역에까지 거주하게 되었다. 초기에는 임시숙소인 바라크를 지어 살았으며 통나무집(무티)과 기와집 그리고 나무 널로 된 집 등 다양한 형태의 주거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강제이주 전에 파르티잔스크 지역에 거주하였던 경우는 박엘레나 할머니(70세)와 민을가 할머니(76세)였다.

“가족은 부모님과 오빠, 여동생, 남동생 등 6명이었다. 4칸 집에 살았는데 안방, 옷방, 고방, 방앗간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각 칸마다 구들이 있었으며 자녀들은 모두 한 방에서 함께 잤다.”

“당시의 마을 주민은 약 20호 정도였다. 나는 무티(통나무집)에서 살았다. 한인들의 집에는 구들이 있었는데 구들방에서 5-6명이 함께 모여 화투놀이를 하기도 했다. 집 주변에는 기와집과 나무널로 만든 집들도 있었다.”

#### 2) 1937년 이후 연해주지역 거주 고려인의 난방 방식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한 고려인들은 1937년부터 스탈린이 사망한 1953년까지 거주지를 전혀 옮길 수 없었다. 1953년 이후에 거주지를 이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중앙아시아를 비롯한 러시아 각지에 거주하던 많은 수의 고려인들이 연해주로 재이주 하였다. 본 연구에서 연해주 지역의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조사대상 고려인의 일반적인 특성

연해주 거주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은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고려인 9가구였다. 조사대상자들은 대부분 중앙아시아에서 재이주 하였으며 이전의 거주지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이었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64세였으며 대부분 3세대 가족이었다. 조사대상자들은 주택을 직접 건축한 경우보다는 매입한 경우가 많았다. 조사대상자들은 대부분 구소련시대의 기본 학제인 10학년을 이수하였다.<sup>4)</sup> 대부분 노

〈표 1〉 연해주에 거주하는 조사대상 고려인의 특성

이 름	성별/나이	가족구성	전 주거지	현거주지 이주시기	건축연도	난방방식	난방연료	취사방식
정연순	여/58	부부, 아들내외, 손녀1	사할린	2000	1985	페치카	나무, 석탄	페치카, 가스, 전기
김베네라	여/46	부부, 아들내외, 작은아들, 딸2	우즈벡	1990	1975	페치카, 온수난방	석탄	페치카, 가스
리마냐	여/70	본인, 아들내외, 손자1, 손녀1	우즈벡	2001	1990	페치카	나무, 석탄	페치카
김웨라	여/77	본인, 딸1	카자흐	1989	1973	페치카, 온수난방, 구들	석탄, 전기	페치카, 가스, 전기, 구들
박알렉산더	남/58	혼자 사심	카자흐	1956	1970	페치카, 온수난방 (구들) 쪽구들	석탄, 전기	페치카, 가스
리올라	여/64	본인, 딸, 손녀2	카자흐	1956	1961	페치카, 구들	나무, 석탄	페치카, 가스, 구들
전인수	남/80	부부, 아들내외, 손자1, 손녀2	우즈벡	1989	1992	온수난방	나무, 석탄	가스
김일루사	남/74	부부	우즈벡	1961	1980	페치카	나무, 석탄	페치카, 가스
송애화	여/50	부부, 아들1	하바롭스크	1993	2001	페치카	나무, 석탄	페치카, 가스

\*구들은 재래식 구들을, 온수난방(구들)은 온수파이프를 바닥에 매입한 개량형 구들을 의미함.

령 연금이 주요 수입원이며 모두 뒷밭을 가지고 있어 여기서 각종 채소를 가꾸고 가축을 길러 자급자족하고 있다<sup>5)</sup>. 자급자족의 기반을 가지고 있으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조사대상자들은 중간 정도의 소득계층으로 평가되었다.

(2) 조사대상 고려인의 난방방식

연해주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의 난방 방식은 크게 페치카, 온수난방, 재래식 구들의 3종류로 분류할 수 있었으며 각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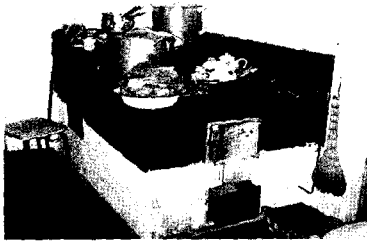
a. 페치카(ПЕЧКА)

페치카는 러시아의 전통 난방방식으로 러시아 주택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하다. 조리와 난방을 겸하는 페치카의 연료는 전통적으로 석탄과 나무이며 최근 들어서는 전기와 가스를 이용하기도 한다. 페치카에서 가열된 뜨거운 공기는 페치카와 연결된 벽 안의 공기 통로를 따라 벽을 데우면서 주변의 방들을 따뜻하게 한다. 일반적인 페치카의 형태는 조리를 할 수 있는 부뚜막과 연기가 나가는 통로인 동시에 열이 발산되는 사각형의 굴뚝이 함께 연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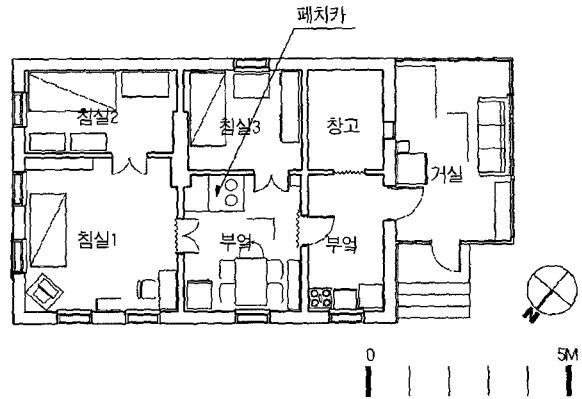
되어 있는 형태이다. 이 외에 부뚜막이 없이 양쪽 방 혹은 4개 방의 모서리를 둘러싼 원통형의 페치카 등이 있다. 보일러를 사용하여 온수난방을 하는 1경우를 제외하고 8경우 모두 부뚜막이 있는 페치카를 사용하고 있었다. 8경우 모두 페치카로 취사와 난방을 겸하고 있었으며 식사는 모두 부엌의 식탁에서 하였다. 최근에는 페치카의 열로 물을 데워 라디에이터를 통한 온수난방을 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가 3경우 있었다. 페치카의 연료는 대부분 나무와 석탄이었고 1경우는 전기를 사용하였다. 페치카만으로 취사하는 경우는 1경우로 대부분 페치카와 구들 그리고 가스를 겸용하여 취사하였으며 전기 레인지를 사용하는 경우도 2경우 있었다(사진 1).

4) 구소련시대의 기본 학제는 10학년이었으나 흐루시초프 시대(1953년) 이후 11학년제로 변경되었다.

5) 연해주 지역의 경우 남자는 60세부터 여자는 5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연금액은 퇴직 이전에 받았던 월급에 준하여 정한다.



<사진 1> 난방과 취사에 사용하는 패치카(김일루사 맥)



<그림 4> 파르티잔스크 김일루사 맥 평면도

b. 온수난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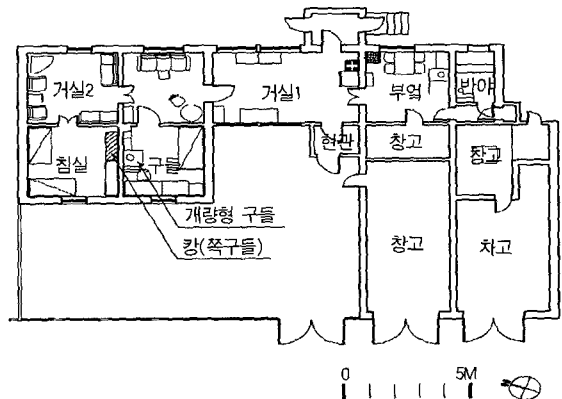
조사대상자 중 온수난방을 하는 경우는 모두 4경우였다. 별도의 보일러를 사용하는 1경우 이외에는 모두 패치카의 열을 사용하여 온수난방을 하고 있었다. 이 중 1경우는 침실 바닥에 별도의 패치카를 매입하고 바닥에 온수 파이프를 깔아 방바닥을 따뜻하게 하는 개량형 구들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었다. 방바닥에 매입한 패치카는 윗부분에서 연료를 넣고 뚜껑을 닫은 상판 위에서 조리할 수 있도록 한 형태였다. 이 개량형 구들방은 1999년에 만든 것으로 가족 모두 따뜻한 바닥에서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현재는 공부방 겸 침실로 사용하고 있다(사진 2).

c. 재래식 구들

연해주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은 '온돌' 보다는 '구들'이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들 중 2경우가 재래식 구들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모두 직접 구들을 놓았다. 2경우 모두 구들의 아궁이 바로 옆에 방이 연결되어 있는 형태였고 구들이 있는 공간을 부엌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부엌 바닥의 한 구석을 밑으로 파 아궁이와 붙 때는 공간을 만들었고 구들바닥에는 흙벽돌을 사용하여 연기가 나가는 통로를 만들었는데 구들방은 부엌바닥에서 약 15-20cm 정도의 단차를 가지고 있었다. 구들의



<사진 2> 개량형 구들에 사용하는 매입형 패치카(박알렉산더 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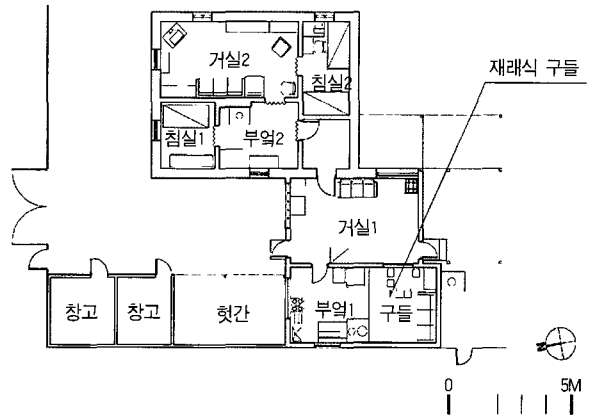


<그림 5> 파르티잔스크 박알렉산더 맥 평면도





<사진 3> 재래식 구들을 취사, 난방, 단란 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리올라 맥)



<그림 6> 파르티잔스크 리올라 맥 평면도

연료는 나무와 석탄을 사용하며 아궁이에서 조리를 겸하고 있고 사용하지 않는 여름에는 불 때는 공간 위에 나무 덮개를 덮어 가려놓는다. 구들방은 2경우 모두 취사와 식사, 단란 장소로 사용하고 있었고 이때에는 고려상을 함께 사용하였다. 고려인 아이들은 뜨거운 바닥에 익숙하지 않아 겨울에는 식탁을 여름에는 고려상을 이용하여 식사하기도 하였다. 조사 대상자들은 구들방을 낮잠을 자거나 손님 접대 등 다용도의 장소로 인지하고 있었으나 취침은 반드시 침대나 소파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 입식 위주의 주생활 관습에 익숙해져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구들이 있는 2경우 모두 구들을 만든 주 목적인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와 단란을 하기 위해서였다(사진 3). 구들의 다른 형태는 강(炕:쪽구들)이었다. 이는 잠을 자는 공간에만 구들이 있는 형식인데 생전의 아버지를 위하여 만든 것으로 별도의 폐치카를 가열하여 사용하고 있었다(그림 5). 재래식 구들을 사용하는 모든 경우가 취사 시에는 구들의 아궁이와 가스레인을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연해주에 거주하는 조사대상 고려인의 난방방식은 크게 폐치카와 온수난방, 재래식 구들의 3가지였고 그 중 폐치카가 가장 보편적인 난방방식이었다. 폐치카의 형태는 모두 조리를 하는 부뚜막과 열을 발산하는 사각형의 굴뚝이 연결된 형태로 취사와

난방을 겸하고 있었고 주 연료는 나무와 석탄이었다. 연해주 거주 고려인들의 중심적인 난방방식이 폐치카인 이유는 스탈린이 사망한 1953년 이후 거주지 이전이 자유로워지면서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연해주로 재이주한 고려인들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아왔고 1991년에 구소련이 와해된 이후에는 경제상태가 더욱 어려워지면서 난방방식 면에서 새로운 형태의 도입이나 개선을 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으로 사료되었다.

## 2. 카자흐스탄 지역

중앙아시아의 초원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카자흐스탄은 북단은 모스크바, 남단은 한반도의 북부와 비슷한 위도이며 북쪽으로 러시아 연방, 동쪽으로 중국과 몽골, 남쪽으로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과 접하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카스피 해(海)에 면하고 있다. 1904-1905년 사이에 수백명의 한인들이 간첩 행위의 방지 명목으로 극동지역에서 러시아 내륙으로 강제 이주되었고 1928년 봄에는 벼농사 재배법의 전수를 위하여 300명 이상의 한인 농민과 양잠업자가 연해주에서 카자흐스탄으로 옮겨왔다(카자흐스탄 고려인협회, 1997). 그리고 1937년 강제이주 정책에 의하여 약 18만 여명의 고려인들이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지역으

로 이주하였다.

1) 카자흐스탄 거주 고려인의 주거 변화에서  
본 난방방식

본 연구에서는 1937년 강제이주 시 카자흐스탄에 정착한 고려인들의 주거와 난방방식의 변화 과정을 고찰하기 위하여 카자흐스탄 지역에서 고려인이 처음으로 정착하였고 현재 고려인의 거주 비율이 높은 알마티(Алматы)와 우슈또베(Уштобе) 지역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하였다.

강제이주로 인하여 1937년 카자흐스탄의 알마티와 우슈또베 등지에 도착한 고려인들은 카자흐족의 집을 비롯하여 학교, 병원, 감옥이었던 건물과 곡식 창고, 마구간 등에서 1년여를 거주해야만 했다. 거처할 곳이 없던 고려인들은 토굴을 파서 살았는데 이는 땅 표면에서 75cm 정도의 깊이와 가로 150cm, 세로 300-400cm 정도의 넓이었다. 한 가족이 거주한 토굴 안에는 구들을 놓아 난방과 조리를 겸하였고 구들방에서 식사와 취침을 하였다. 토굴 위의 평지에는 나뭇가지와 풀 등으로 지붕을 만들었다. 토굴은 1939년도부터 서서히 사라지고 대부분의 고려인들이 러시아 정부에서 지어준 주택에 거주하였다. 초기의 주택은 흙과 짚(갈대) 등의 자연적인 재료를 주로 사용했으며 흙덩이를 문쳐 벽을 쌓기도 하였다. 후에는 여러 가지 자연재료를 혼합한 흙벽돌을 사용하였는데 흙벽돌로 지은 초기 주택은 방 2

칸으로 구성된 한 단위의 주택 두 개가 붙어 있는 형식으로 각기 독립된 출입문을 가지고 있었다.

“그 당시의 벽들은 새똥, 짚, 흙, 팥똥 등을 섞어서 나무틀에 넣어서 햇볕에 말려 만들었다. 집 안에서 보면 천장에 갈대 등을 섞은 것이 보였으며, 천장에 회칠을 하였으나 가끔 흙이 떨어지곤 했다. 그 당시엔 당국에서 살라고 지정해 준 집에 살아야 했다. 가족이 많으면 먼저 집을 받을 수 있었다. 그 당시 집은 모두 똑같은 구들 집 이었다”(최루시아, 60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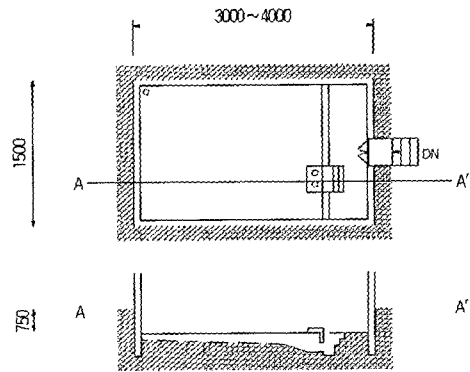
“1937년에 이주 당해 온 후 힘들었으나 1950년부터는 상황이 좀 나아졌다.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어서 구들을 싣(모두) 다 놔주었다. 구들 재료는 연해주와 마찬가지로 돌을 놓고 짚을 깔고 하였다. 벽은 흙으로 만들었고 지붕은 경사지게 하였다. 정지간과 방 1칸으로 된 집이 많았는데 정지간에는 주로 아이들이 자고 그 옆방에는 부모들이 잤다”(김순녀, 81세).

한 단위의 주택은 구들이 있는 정지간과 그 옆의 방 1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정지간은 조리과 식사 그리고 아이들의 공부와 취침 공간으로 사용하였고 그 옆방은 대개 부부의 취침 공간으로 사용하였다. 구들방 아래에는 돌을 깔아 연기 통로를 만들었으며 주로 풀과 짚을 연료로 사용하였다.

구들이 있는 고려인 가옥은 1960년대 이후 우크라이나와 벨로루시 등지에서 들어온 이주민들의 임시 거처로 사용되면서 그 형태가 변화하였고 사라



〈사진 4〉 강제이주 초기의 주거인 토굴  
("사진으로 보는 한인 이민사와 카자흐스탄" 사진전  
(국립민속박물관, 2003. 11. 12. - 12. 1))



〈그림 7〉 이주 초기의 토굴 내부와 구들의 추정도(면담을 토대로 작성함)

지기도 하였다. 1960년대 이후 고려인들이 건축한 주택은 대부분 러시아식이었으며 이때부터 페치카의 사용이 일반화된 것으로 보인다.

2) 카자흐스탄 거주 고려인의 난방 방식

(1) 조사대상 고려인의 일반적인 특성

카자흐스탄 거주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2>와 같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은 단독 주택에 거주하는 고려인 12가주였다. 조사대상자들의 평균연령은 59세였으며 반 정도가 3세대 가족의 형태였다. 조사대상자들은 구소련시대의 기본 학제인 10학년을 이수하였다. 거주자들 모두 주택 앞뒤에 있는 텃밭을 가꾸고 가축을 길러 자급자족하고 있으며 대부분 노령연금이 주 수입원이다.<sup>6)</sup> 자급자족의 터전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조사대상자들은 현재 카자흐스탄에서 중간 정도의 소득계층으로 평가되었다.

(2) 조사대상 고려인의 난방 방식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의 난방 방식은 크게 페치카, 온수난방, 재래식 구들의 3종류로 분류할 수 있었으며 각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페치카(ПЕЧКА)

카자흐스탄의 조사대상 고려인 12경우 중 4경우가 페치카를 사용하고 있었다. 페치카의 형태는 4경우 모두 부뚜막에 사각형의 굴뚝이 연결되어 있는 형태였고 페치카의 열을 난방과 조리에 함께 사용하였다. 페치카의 연료는 나무와 석탄이었으며 지역에 따라서는 화력이 좋은 싹싸우 나무<sup>7)</sup> 만을 연료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취사 시 페치카만을 사용하는 경우는 없었고 페치카를 사용하는 4경우 모두 가스를 겸용하였다. 식사는 모두 페치카가 위치한 부엌에서 식탁을 사용하였다. 페치카를 사용하는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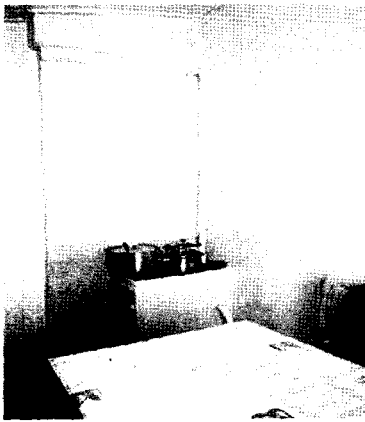
6) 카자흐스탄은 구소련 시대에 여자는 55세, 남자는 60세 이상이면 연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현재는 여자는 58세 남자는 63세부터 연금을 받도록 변경되었다. 최근 경제사정의 악화로 몇 해째 연금액이 절하되어 연금만으로는 생활하기가 어렵다. 많은 고려인들이 텃밭을 가꾸고 가축을 기르며 하숙을 하는 등의 부업으로 가계를 꾸려나가고 있다. 대부분 구소련 시대의 경제 상태가 더 좋았다고 평가하였다.

7) 중앙아시아의 염지나 사막에 있는 나무로 가구용 재료로 사용되며 열의 양도체로서 좋은 질을 가지고 있어 석탄을 대용하는 연료로 많이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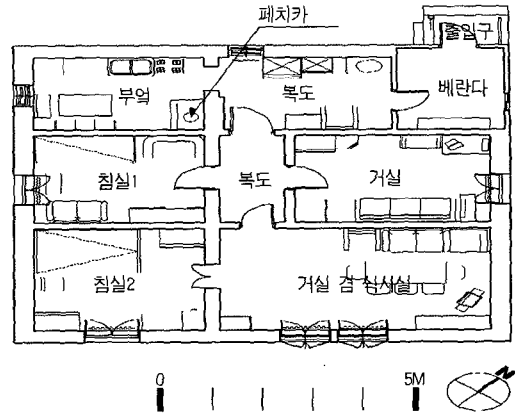
<표 2>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는 조사대상 고려인의 특성

이름	성별/나이	가족구성	건축연도	난방 방식	난방 연료	취사방식
허애라	여/60	본인, 친정어머니	1977	온수난방(구들)	가 스	가 스
최루시아	여/58	본인, 딸, 손자	1938	구 들	나무, 석탄	구들, 가스
엄라티놀	남/45	부 부	1990	온수난방(구들)	나무, 석탄	가 스
현갈리나	여/64	부부, 딸아들 부부, 손주 3	1970	온수난방, 구들	나무, 석탄	구들, 가스
이갈리나	여/67	부부, 아들	1985	온수난방, 구들	나무, 석탄	구들, 가스
성여선	여/76	부 부	1960	페치카, 온수난방, 구들	석 탄	페치카, 가스
박보리스	남/72	본인, 아들, 손주 2	1970	온수난방, 구들	석 탄	구들, 가스
이다찌아나	여/68	부 부	1977	페치카, 온수난방	나무, 석탄	페치카, 가스
니올가	여/78	본인, 딸부부, 손녀	1966	페치카, 온수난방	나 무	페치카, 가스
김발렌티나	여/39	부부, 시어머니, 아들	1966	온수난방(구들)	나 무	페치카, 가스
전갈리나	여/40	부부, 아들, 딸	1967	페치카, 온수난방	나무, 석탄	페치카, 가스
김엘라	여/41	본인, 친정아버지	1966	온수난방	나무, 석탄	가 스

\* 구들은 재래식 구들을, 온수난방(구들)은 온수파이프를 바닥에 매입한 개량형 구들을 의미함.



〈사진 5〉 온수난방과 취사에 사용하는 페치카(니올가 맥)



〈그림 8〉 백바흐타 콜호즈 니올가 맥 평면도

경우 모두 페치카의 열을 이용하여 온수 라디에이터 난방을 하였다(사진 5).

b. 온수난방

페치카의 열을 사용하여 온수난방을 하는 경우가 4경우였으며 별도의 보일러를 사용하는 경우가 7경우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재래식 구들만을 사용하여 취사와 난방을 하는 1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대상자 11경우가 모두 온수난방을 하고 있어 라디에이터를 통한 온수난방이 카자흐스탄 거주 고려인의 일반적인 난방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조사대상자들 중 1경우는 온수 라디에이터를 통한 난방과 함께 온수 파이프를 벽에 매입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다.

온수난방을 하는 조사대상자들 중 3경우가 바닥에 온수파이프를 매입하여 바닥을 따뜻하게 하는 개량형 구들을 사용하고 있었다(사진 6). 개량형 구들을 만든 시기는 각각 77년, 90년, 98년이었고 만든 이유는 따뜻한 바닥에서 가족들과 함께 앉아 식사하고 단란하기 위해서이며 또한 아이들도 구들에서 잘 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3경우 모두 페치카 형태의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1경우는 페치카만을 매입하였으나 2경우는 보일러 옆에 불을 때는 아궁이 공간을 만든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3경우 모두 뚜껑을 닫은 상판 위에서 조리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사진 7). 이는 구들과 페치카의 두 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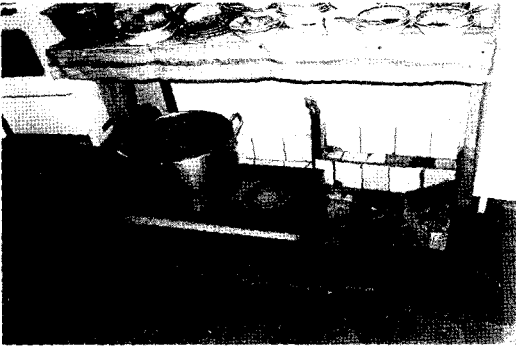


〈사진 6〉 개량형 구들방에서 식사와 단란을 하는 경우(김 발렌티나 맥)

난방방식으로부터 현재의 주생활에 적합한 형태를 만들어낸 새로운 개념의 난방방식의 예로 볼 수 있다. 개량형 구들방에서 취사와 식사를 함께 하는 경우는 2경우였으며 취침을 하는 경우는 1경우로 침대를 사용하였다. 3경우 모두 공통적으로 구들방을 가족의 단란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어 구들이 가족 생활의 중심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온수난방의 연료는 가스를 사용하는 1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나무와 석탄이었으며 대부분 식사는 부엌의 식탁에서 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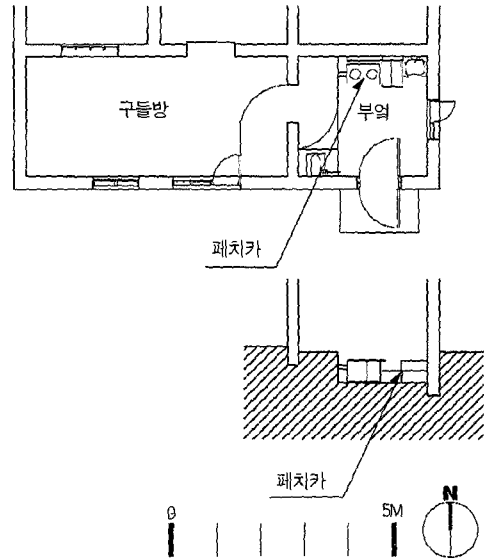
c. 재래식 구들

조사대상 고려인 중 재래식 구들이 있는 경우는 모두 5경우로 이 중 현재까지 사용하는 경우는 4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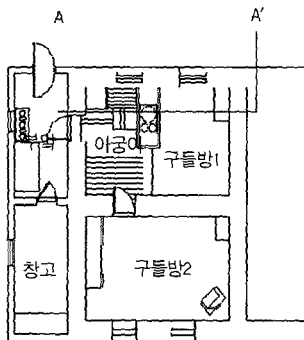
<사진 7> 패치카를 부엌 바닥에 매입하여 아궁이 형태로 사용하는 경우(김발렌티나 맥)

우였다. 구들의 축조 시기는 1938년부터 1990년대까지였는데 구들이 있는 집을 사서 온 1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대상 고려인들 모두 구들을 직접 놓았다. 구들의 형태는 모두 조리를 할 수 있는 아궁이가 있고 아궁이 옆에 바로 방이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모두 부엌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구들방은 부엌 바닥에서 약 15-20cm의 높이였다(사진 8). 연료는 모두 석탄과 나무를 사용하고 있으며 구들방에 불을 때지 않을 때에는 불 때는 공간을 나무 덮개로 가려놓아 부엌 바닥과 같은 높이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이는 취사와 바닥 난방에 필요한 아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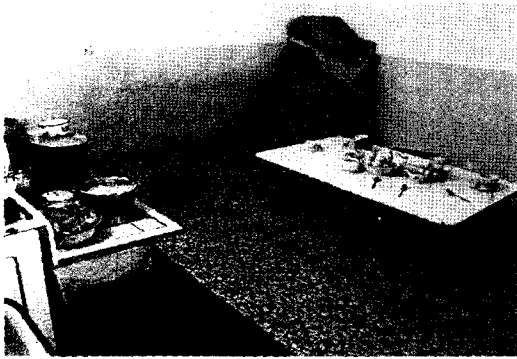


<그림 9> 백바흐티 콜호즈 김발렌티나 맥 평면도와 패치카 단면도

를 보존하면서 불을 때지 않을 때에는 입식생활을 병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취사 시에는 모두 아궁이의 열원과 가스레인을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구들방은 모두 취사와 식사, 단란뿐 아니라 취침하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었다. 구들



<그림 10> 1938년 건축한 최루시아 주택의 평면도와 구들의 단면도



〈사진 8〉 재래식 구들을 난방, 취사, 단란 및 취침에 사용하는 경우(현갈리나 맥)

방을 사용하는 4경우 중 3경우가 구들방에서 요와 고려상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1경우는 구들방에 침대와 식탁을 두고 취침과 식사를 하였다(사진 9). 구들을 만든 목적은 대부분 바닥이 따뜻한 것이 기분이 좋고 몸에도 좋다고 생각하여 만들었으며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공간으로 사용하는 지금의 상황에 매우 만족하고 있었다.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는 조사대상 고려인의 난방 방식은 크게 폐치카와 온수난방, 재래식 구들의 3가지였다. 조사대상자 모두가 라디에이터를 통한 온수난방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대부분 별도의 보일러를 사용하였다. 재래식 구들 또한 러시아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의 주요한 난방방식 중의 하나임을 알 수 있었는데 주된 난방연료는 나무와 석탄이었다. 중앙아시아에서 구들이 고려인의 주거문화로 지속될 수 있었던 배경은 중앙아시아의 주거문화가 좌식문화에 기반을 두고 있는 데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최근 들어 중앙아시아인들 사이에서 구들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따라서 이에 대응하여 구들이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 3. 우즈베키스탄 지역

중앙아시아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은 동쪽으로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 남쪽



〈사진 9〉 재래식 구들에 침대를 놓고 사용하는 경우(이갈리나 맥)

으로 아프가니스탄에 접해있고 남서쪽으로 투르크메니스탄, 북쪽과 북서쪽은 카자흐스탄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최초의 한인인 1897년 페르가나 주에 조선어를 모국어로 하는 고려인 3명이 거주하였다는 기록에서 볼 수 있으며 1922년에는 이미 고려인들이 타슈켄트를 중심으로 하여 집단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국립민속박물관, 1999). 고려인들이 우즈베키스탄으로 대거 이주한 계기는 1937년 러시아 정부가 행한 강제이주에 의해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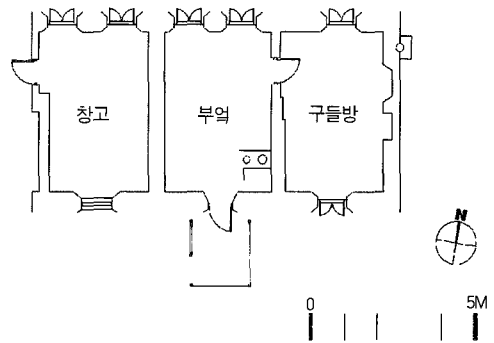
#### 1) 우즈베키스탄 거주 고려인의 주거 변화에서 본 난방방식

본 연구에서는 1937년 강제이주 시 우즈베키스탄에 정착한 고려인들의 주거와 난방방식의 변화 과정을 고찰하기 위하여 우즈베키스탄의 중심지이면서 고려인의 거주 비율이 높은 타슈켄트, 사마르칸트, 부하라 등지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하였다.

우즈베키스탄으로 강제 이주된 약 74,500여명의 고려인들은 토착민인 우즈베크 인의 집에 함께 거주하거나 빈 집, 학교, 이슬람 교회 혹은 가축우리에도 거주하였다. 많은 고려인들이 땅을 파서 만든 토굴(지불란카: Землянка)에서 살았는데 이것은 땅을 파서 바닥을 만들고 구들을 놓아 난방과 조리를 하도록 하였으며 땅 위에는 깔과 돌 등으로 지붕을 만들어 흙으로 덮은 형태였다. 이 시기에 지은 주택은 주로 깔 등의 자연재료를 이용한 것으로 '깔막'



<사진 10> 1937년에 건축한 주택(타슈켄트, 아흐마드아 사비 콜호즈)



<그림 11> 1940년에 건축한 주택의 평면(타슈켄트, 드미트리콜호즈, 김알렉산드라 맥)

이라고 하였다.

“처음에는 깔로 된 집에서 살았다. 지붕을 깔로 덮고 벽도 깔로 하였으며 도배는 흙으로 하였다. 땅을 파고 들어가 불을 땀다. 여기에 고려인들이 전부 들어가 살았다. 이 ‘짚풀 유르파’에서 1937년부터 1940년까지 살았다. 그리고 한 2년 있다가 조합(콜호즈)에서 집을 지어 주었다”(박이름렌, 75세). “처음에 살았던 집은 깔집이었는데 여기에 구들이 있었다. 깔집은 한 1, 2년 지나면 썩어서 무너진다. 그래서 다음 해부터는 깔을 안 쓰고 흙덩어리를 쌓아올려서 흙집을 지었다. 여기에도 구들이 있었다. 1955년에 결혼한 후 살았던 집도 역시 흙집이었고 카자흐 사람들과 함께 살았다. 5년 정도 지나서 조합에서 벽돌집을 지어 주었다”(박이나톨리, 72세).

1937년-1938년에 각 지역마다 콜호즈가 조직되었고 구성원들을 위한 주택을 지었는데 초기에는 주로 흙을 사용하였고 1938년경에는 나무와 시멘트를 공급받았다. 이때의 주택은 대부분 2, 3칸 주택으로 2칸의 주택은 정지간과 방 1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정지간에는 구들을 놓아 난방과 조리를 겸하였으며 연료는 풀과 깔을 사용하였다. 1942년경부터 벅장(흙벽돌)을 사용하였는데 이때에도 역시 2, 3칸의 주택이 보편적이었다. 점차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서 큰 규모의 주택을 짓게 되는데 기존의 구들이 있는 작은 주택은 여름에 사용하는 부엌 혹은 곡식창고 등으로 사용하였다. 제 2차 세계대전으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1950년대에는 주택 건설이 일

시적으로 중단되었다. 고려인의 초기 가옥은 1960년대 이후 우크라이나와 벨로루시 등으로부터 들어온 이주민들에 의해 사용되면서 그 형태가 변화하고 또한 사라지기도 하였다. 1960년대 이후에 새로 건축한 주택은 주로 러시아 형식을 따라 지었으며 난방 방식 역시 페치카를 도입하게 되면서 구들은 점차로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 2) 우즈베키스탄 거주 고려인의 난방 방식

### (1) 조사대상 고려인의 일반적인 특성

우즈베키스탄 거주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3>과 같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은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고려인 10가구였다. 조사대상자들의 평균 연령은 69세였으며 가족 형태는 자식들이 장성하여 분가한 후 부부만이 거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조사대상자들은 대부분 콜호즈(집단농장)의 조합에서 주택을 받았으며 현재는 모두 자신들의 주택으로 소유하고 있었다. 구소련이 와해된 이후 콜호즈의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노령연금이 주 수입원인 조사대상자들은 대부분 주택 내의 텃밭을 가꾸고 가축을 키워 가정 경제를 해결하고 있었다.<sup>8)</sup>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우즈베키스탄 사회에서 자급자족의 기반을 가지고 있으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조사대상자들은 중간 정도의 소득계층으로 평가되었다.

〈표 3〉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는 조사대상 고려인의 특성

이름	성별/나이	가족구성	건축연도	난방 방식	난방 연료	취사방식
최계나지	남/50	부부, 손녀	1938	없음	없음	가스
양나젤다	여/67	부부	1970	온수난방(구들)	가스	가스
박다짜아나	여/76	부부	1956	온수난방(구들)	가스	가스
최일리아	남/69	혼자사십	1970	페치카, 온수난방(구들)	가스	가스
김발렌티나	여/67	부부, 손녀	1974	온수난방	가스	가스
김알렉산드라	여/74	부부	1940	페치카, 온수난방, 구들	가스	가스
김알렉산드라	여/69	부부	1938	온수난방(구들), 구들	가스	가스
손보리스	남/70	부부, 아들부부, 손자2	1964	온수난방	가스	가스
리철수	남/78	부부	1961	온수난방(구들)	가스	가스
김안토니아	여/72	부부, 작은아들	1967	온수난방(구들), 구들	가스	가스

\* 구들은 재래식 구들을, 온수난방(구들)은 온수파이프를 바닥에 매입한 개량형 구들을 의미함.

## (2) 조사대상 고려인의 난방 방식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의 난방 방식은 크게 페치카, 온수난방, 재래식 구들의 3종류로 분류할 수 있었으며 각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a. 페치카(ПЕЧКА)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는 조사대상 고려인의 주택에는 부뚜막과 사각형의 굴뚝이 함께 연결되어 있는 형태의 페치카는 볼 수 없었고 벽에 남아있는 굴뚝 등에서 페치카를 사용한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양쪽 방에 함께 연결되어 있는 원통형 페치카를 사용하는 예를 2경우 볼 수 있었는데 1경우는 침실에, 1경우는 거실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러나 본래의 형식대로 원통형 페치카에 직접 불을 때지 않고 가스를 연결하여 그 열원으로 난방을 하는 동시에 라디에이터의 온수를 덤히고 있었다(사진 11). 우즈베키스탄에서 고려인이 밀집하여 거주하는 고려인 콜호즈는 경제적으로 매우 풍요로웠던 지역으로 다른 지역보다 빠른 시기인 1960년대부터 지상의 파이프를 통하여 가스를 공급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고려인 주택에서 페치카가 없어지고 가스를 이용한 취사와 난방 시설로 전환하게 된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 b. 온수난방

조사대상 10경우 중 난방을 갖추지 않은 1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온수 라디에이터 난방 방식이었으며 이 중 6경우가 바닥에 온수 파이프를 매입한 개량형 구들을 사용하고 있었다. 개량형 구들을 만든 시기는 가스가 들어온 시기인 1960년대 말부터 2000년까지였다. 가스를 사용하는 보일러는 4경우는 욕실에, 4경우는 별체에, 그리고 1경우는 부엌에 두고 있었으며 라디에이터는 침실과 거실을 비롯하여 부엌과 욕실 등 모든 공간에 연결되어 있었다. 취사 시에는 모두 가스레인지 사용하였다.

개량형 구들을 사용하는 경우 바닥에 요를 깔고 취침하는 경우는 4경우였으며 침대와 요를 겸용하는 경우는 2경우로 바닥이 따뜻하면 대부분 바닥에서 취침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사진 12). 그러나 식사는 대부분 부엌의 식탁을 이용하고 있었다. 바닥에서 식사하는 경우는 2경우 있었는데 1경우는 별체에 식사공간을 따로 만든 경우였고 다른 1경우는 재래식 구들이 있는 구들방을 식사 공간으로 사

8) 현재 우즈베키스탄은 남자는 60세부터 여자는 5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점차로 경제가 어려워져 대부분의 조사대상자들이 연금만으로는 생활하기가 어렵다고 평가하였다. 단독주택 거주자의 경우 텃밭을 가꾸고 가족을 길러서 도움을 받고 있으며 대부분의 거주자들이 자식들에게 경제적인 원조를 받고 있었다. 구 소련 시대에 국가에 기여한 공로 등이 우즈베키스탄의 독립 이후에 전혀 인정되지 않고 있어 그 어려움이 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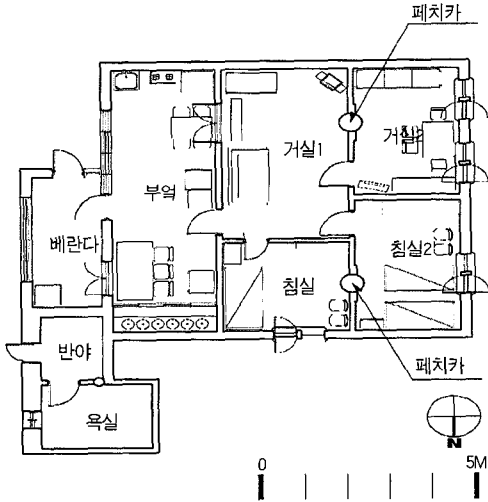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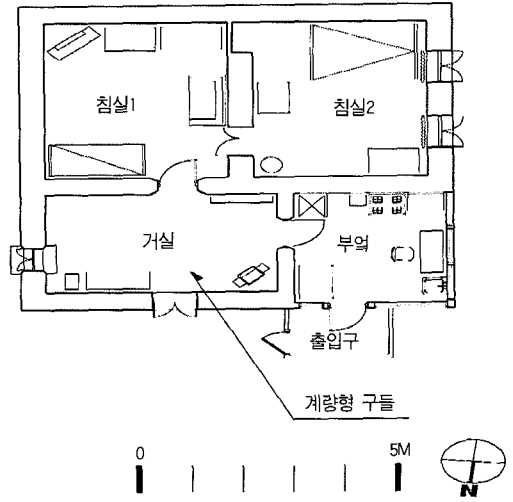
<사진 11> 원통형 페치카를 사용하는 온수난방(김알렉산드라 맥)



<사진 12> 개량형 구들을 단란 및 취침에 사용하는 경우(박이나톨리 맥)



<그림 12> 드미트리 콜호즈 김알렉산드라 맥 평면도



<그림 13> 김병화 콜호즈 박이나톨리 맥 평면도

용하는 경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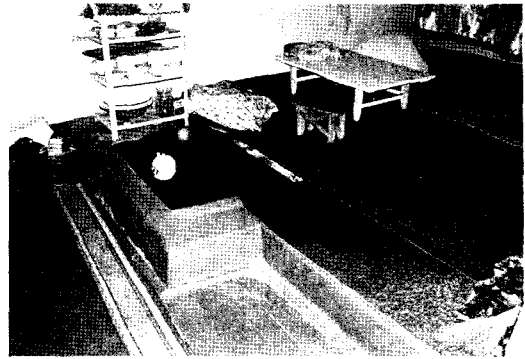
그러나 개량형 구들을 사용하는 6경우 모두 가족들이 많이 모이면 바닥에서 고려상을 이용하여 식사하였고 자녀들을 위해 목독산<sup>9)</sup>을 함께 사용하였다. 개량형 구들이 없는 4경우 중 2경우도 가족들이 많이 모일 때에는 바닥에서 고려상을 사용한다고 하여 고려상은 우즈베크 거주 고려인들의 필수적인 생활 가구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조사대상자들이 개량형 구들을 만든 주 목적은 가족 단란을 위해서였으며 어린 아이들까지도 구들방에

서 노는 것을 좋아한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따뜻한 바닥이 고려아이들에게도 푸근한 주생활 환경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결과적으로 구들은 기술의 발전으로 그 모습은 변화하였으나 고려인의 생활 속에서 여전히 가치를 인정받으며 전통으로 지켜지고 있었다.

9) '목독산' 이라고도 한다. 높이 20cm 정도의 나무로 만든 간이의자로 우즈베크스탄에 사는 다양한 민족이 거의 사용하고 있다. 목독산을 사용하면 앉으면 바닥에 앉을 때의 다리 저림을 완화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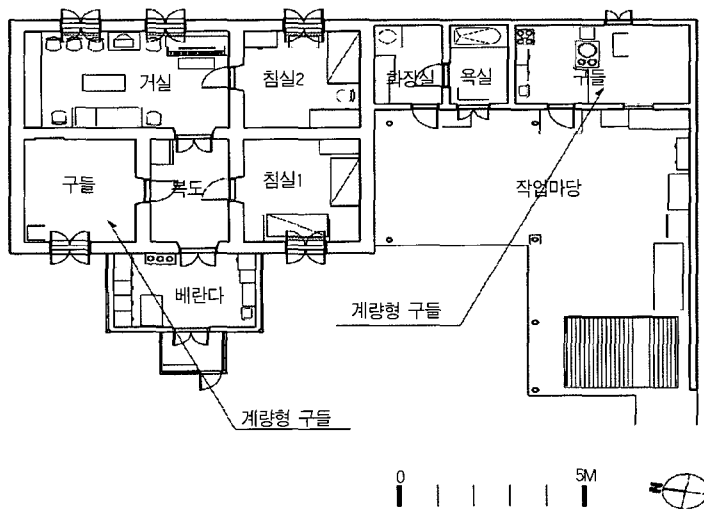
c. 재래식 구들

조사대상 고려인 중 3경우가 현재 거주하는 가옥 이외에 1938년-1940년에 건축된 구들이 있는 초기가옥을 별채로서 보유하고 있었다. 이 중 2경우는 초기가옥 자체를 사용하고 있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자식들이 장성하여 독립하면서 생활공간이 충분해져 사용할 이유가 적어졌고 또한 2채의 주택을 건사하기가 힘들기 때문이었다. 구들의 형태는 3경우 중 2경우가 아궁이가 있는 부뚜막과 구들방 사이에 벽이 없이 바로 이어져 있는 형태였다. 현재 구들을 사용하고 있는 1경우는 초기가옥의 본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용 방식을 변화시켜 취사와 식사 및 단란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즉, 정지의 부뚜막은 그대로 두어 조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부뚜막 앞의 아궁이를 막은 후 같은 높이의 마루를 깔았으며 구들방의 바닥에는 온수파이프를 매입하였다. 취사와 난방에 사용하는 연료는 가스였고 불을 때지 않는 여름에는 가스레인지를 겸용하여 취사하였다. 구들방에서는 고려상에 앉아 식사를 하며 고려상을 이용하여 가족단란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사진 13>.



<사진 13> 재래식 구들을 가스를 사용하는 형태로 고쳐 취사와 식사, 단란 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김안토니아 맥)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는 조사대상 고려인의 중심적인 난방방식은 라디에이터를 이용한 온수난방이었으며 조사대상 세 지역 중 온수파이프를 바닥에 매입한 개량형 구들의 사용정도가 가장 높았다.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난방연료는 가스였는데 이는 우즈베키스탄에서 가스가 많이 생산되며 특히 고려인 콜호즈에 일찍부터 가스가 공급되었기 때문으로 파악되었다. 나무와 석탄을 사용하는 재래식 구들과 가스를 사용하는 개량형 구들을 함께 사용하고 있



<그림 14> 김병화 콜호즈 김안토니아 맥 평면도

는 모습에서 한반도의 구들이 현지의 생활 속에서 여전히 전통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IV. 결론 및 제언

1. 문헌을 통하여 1937년 이전에 연해주에 거주하였던 고려인들의 난방방식에 대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최초의 한인 거주지였던 포쉬에트 지역 그리고 블라디보스톡, 수이푼 우스리스크, 파르티잔스크 지역 등에서 구들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1937년 이전에 연해주 지역에 거주하였던 고려인들과의 면담을 통하여 주택의 추정 평면도를 작성한 결과 당시의 한인주거는 함경도 등지에서 볼 수 있는 주거와 유사한 형태로 파악되었다. 이는 연해주 거주 고려인들의 출신지가 함경북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평안남도의 순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된 문헌(이채문, 2000)과 관계있는 결과로 연해주로 이주한 한인들이 한반도에서의 주거 형식을 계속해서 유지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 연해주와 카자흐스탄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세 지역의 난방방식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연해주의 조사대상 고려인들의 난방과 취사는 폐치카를 중심으로 하여 행하고 있었다. 온수난방도 하고 있으나 이 역시 폐치카의 열을 사용하여 물을 데우는 형식이었다. 카자흐스탄의 조사대상 고려인들의 중심 난방방식은 라디에이터를 통한 온수난방이었고 대부분 별도의 보일러를 두고 있었다. 카자흐스탄은 세 지역 중에서 재래식 구들의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그 형태는 모두 아궁이가 있는 부엌과 구들방이 하나로 연결된 형태였다. 우즈베키스탄의 조사대상 고려인들의 중심 난방방식은 온수난방이었고 세 지역 중 온수파이프를 바닥에 매입한 개량형 구들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즉, 연해주 지역은 나무와 석탄을 사용하는 폐치카를,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온수난방을 중심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1953년 이후 거주지 이전이 자유로워지면서 연해주로 재 이주한 대부분의 고려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아왔고 1991년에

구소련이 와해된 이후에는 경제상태가 더욱 어려워지면서 새로운 난방방식의 도입이나 개선을 할만한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사료되었다. 연해주와 카자흐스탄의 주된 난방 연료는 나무와 석탄이었으며 이에 비하여 우즈베키스탄은 가스를 주요 열원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는 우즈베키스탄에서 가스가 많이 생산되고 있으며 특히 고려인 콜호즈에 일찍부터 가스가 공급되었기 때문에 파악되었다.

3. 연해주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은 난방과 취사를 겸한 주된 난방 방식으로 구들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구들의 주 연료는 나무와 석탄이었으며 구들의 형태는 아궁이에서 불을 때고 부뚜막에서 조리를 하며 부뚜막 옆에 바로 구들방이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주로 함경도 지방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유형이었다. 러시아 지역의 구들형식에 있어 함경도 지방과의 차이점은 함경도 지방의 경우 정지 부분과 구들방 사이에 단차가 있어 신발을 벗고 오르내리도록 되어 있는 반면 러시아 지역의 구들은 아궁이 앞에 불을 뿜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만을 마루 밑으로 파놓은 점이다. 따라서 구들에 불을 때지 않을 때에는 이 공간을 나무판자로 덮어두어 마루와 같은 높이로 만들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입식의 활동성을 높일 수 있다. 이는 전통의 문화가 새로운 환경에 도입되어 적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고유의 기능은 지키면서 그 형태는 현지의 주생활 환경에 적합한 방향으로 발전되어 가는 하나의 예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취사와 바닥 난방에 필요한 아궁이를 보존하면서 현지의 입식생활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한 것이다.

구들은 현재 연해주와 중앙아시아 지역을 제외한 사할린 등지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앙아시아에서 구들이 고려인의 주거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배경은 중앙아시아의 주거문화 역시 좌식문화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되었다. 최근 들어 중앙아시아인들의 구들에 대한 선호 정도가 점차로 높아지고 있음을 생각할 때 다민족이 모여 사는 중앙아시아에서 구들은 하나의 난방방식으로서의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4. 온수파이프를 바닥에 매입하여 바닥을 따뜻하게 하는 식의 개량형 구들은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하여 세 지역에서 골고루 볼 수 있었던 난방 방식이었다. 바닥에 매입한 온수 파이프를 데우는 보일러를 외부에 둔 경우도 있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러시아식 페치카를 실내 바닥에 매입하고 그 앞에 불을 때는 공간을 만들어 조리를 할 수 있는 취사용 아궁이와 같은 역할을 하도록 만든 경우도 있었다. 이는 한반도의 구들과 러시아의 페치카라는 각각의 전통적인 주거 요소가 만나는 과정에서 현지의 주생활에 적합한 요소들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새로운 개념의 난방방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무와 석탄을 사용하는 재래식 구들의 지속과 가스를 사용하는 개량형 구들의 사용 그리고 현지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새로운 형식의 구들 등의 모습에서 한반도의 구들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여 그 모습은 바뀌었으나 현지의 생활 속에서 여전히 그 가치를 인정받으며 전통으로 지켜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5. 연해주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의 세 지역에서 재래식 구들과 개량형 구들을 사용하는 거주자들의 공통점은 구들방을 모두 가족단위 공간으로 사용한다는 점이었다. 고려인들이 러시아 이주 초기부터 사용하였던 구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로 그 사용 정도가 감소한 것은 1960년대 이후 고려인들이 러시아식의 주택을 짓고 페치카를 도입하면서 입식 위주의 생활에 적응하게 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여기에는 소수민족으로서 현지인과 다른 방식의 생활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고려인들 스스로가 보다 적극적인 현지 적응의 방편으로 입식 생활을 택하고자 했던 배경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연구결과 구들은 러시아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의 생활 속에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대표적인 전통 문화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특정민족의 주거문화는 거주지역을 달리하여도 여전히 지속성을 가지고 발전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한 예라 할 수 있다.

고려인의 주거에서 구들방이 가족중심 공간으로서의 고유한 기능을 지켜나가고 있는 것과 연관하

여 러시아에 거주하는 고려인의 생활양식에 관한 심층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구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러시아의 주택에 적용하고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다민족이 거주하는 러시아에서 구들이라는 전통문화가 교류되고 발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가 요망된다.

## ■ 참고문헌

- 국립민속박물관(1999). 우즈베키스탄 한인동포의 생활문화. 권업신문(1912. 5. 26 - 1914. 8. 29)
- 대외경제정책연구원(1994). 우즈베키스탄 편람.
- 삼천리(1929. 7 - 1941. 11)
- 신동아(1931. 11 - 1936. 8)
- 이광규(1998). 러시아 연해주주의 한인사회. 집문당.
- 이사벨라 버드 비숍 저, 이인화 역(1994).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 도서출판 살림.
- 이상해, 이진현(2003). 연해주 지방 한인주거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23(1).
- 이영심, 조재순(2003). 문헌자료를 통해 본 러시아 거주 한인들의 주거. 대한가정학회 제 56차 춘계학술대회논문집, 185.
- 이영심, 조재순(2004). 러시아 거주 고려인의 주거에 관한 연구 - 연해주(Yunhaju: 沿海州)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주거학회지, 15(1), 51-62.
- 이영심, 조재순, 이상해(2003). 러시아 연해주 지역의 한인주거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1(7), 59-71.
- 이재문(2000). 한인의 러시아 극동지역 이주: 역사와 이론. 슬라브학보 15(1), 한국슬라브학회 365.
- 전경수(2002). 카자흐스탄의 고려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조재순, 이영심, 이정규, 이선희(2003). 중앙아시아에서 연해주 정착촌으로 재이주한 개소한인 가족의 주거생활 사례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3), 101-107.
- 카자흐스탄 고려인협회(1997). 카자흐스탄의 고려인. 한길사 편집부(1992). 러시아와 독립국가연합을 이

사전. 한길사.

А.И.Петров (2001). Корейская Диаспора в России 1987-1917 гг. Дво Ран.

А.И.Петров (2000). Корейская Диаспора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России 60-90-е годы XI-X века. Дво Ран.

Ким История Иммиграции (1999). корей Цев,

Книга Первая. Вторая Половина 20в-1945г., Алматы.

Д.В. Мен (1992). Советские корейцы Казахстана, Алма-Ата.

(2004년 5월 31일 접수, 2004년 11월 3일 채택)